

여름자연체험수련회를 다녀와서

김형준(전도사, 서울 하늘샘교회)

1. 들어가며

여름성경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교회 집사님께서 농촌생태체험으로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장소와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기는 7월 말경으로 잡았고, 장소는 충북 충주 소태면에 소재한 야촌교회(박훈서 목사님)였습니다. 답사를 다녀올 때는 원주를 통해 오느라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 방면으로 가지 않고, 충주 방면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알게 되어 예상했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자연체험수련회는 중고등부와 어린이부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참가한 인원은 중고등부 6명, 어린이부(유치부 3명 포함) 17명,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총 31명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중고등부와 어린이부가 함께 자연체험수련회를 한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걱정은 그리 큰 것이 아님을 진행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연'이란 교재 앞에서 어떠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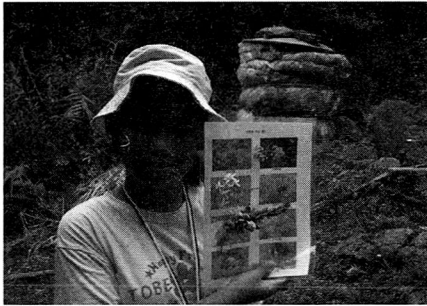
연과 함께 동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2. 자연체험수련회 과정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자연체험수련회를 통해서 느꼈던 점을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둘째 날 오전과 오후, 셋째 날 오전에 중점을 두어 야촌교회에 계신 박훈서 목사님께 위탁하여 자연체험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의 이야기는 배제하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신 자연체험 프로그램에만 중점을 두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날(7월 25일)은 수련회 장소인 야촌교회에 예정시간보다 3시간 빨리 도착하였습니다. 우선 개회예배를 드린 후에 아이들과 함께 2시간 가량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기 위해 논뚝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신기한 듯 했습니다. “어! 저거 뭐예요?”, “물놀이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잠자리 잡아주세요!”, “우와! 저도 잡아주세요!” 아이들은 의문사와 감탄사를 연발하며 물놀이 장소에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교회와 물놀이 장소가 멀지 않고, 물이 깊지 않으며 물살이 빠르지 않아 아이들이 놀기에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교회에서 물놀이 장소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농촌의 자연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신기함으로 다가오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중에도, 물놀이에 폭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냇가를 걸어 다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짐정리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야촌교회 박훈서 목사님께서 2박 3일 동안 진행될 프로그램인 식물나라, 물의 나라, 곤충나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은 자연체험캠프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 기대감을 간직하고 첫 날 밤을 보냈습니다.



식물 채반침을 들고있는 아이

둘째 날 오전과 오후에는 식물나라와 물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인 식물나라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자리 채와 채집통, 여름에 피는 꽃들이 코팅된 채반침을 조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10여분 정도 차를 타고 포장된 도로를 달려 미륵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조금은 덜 미친 청정지역처럼 신선한 공기와 향긋한 식물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박훈서 목사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나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채반침에 나와 있는 꽃들이 있으면 채반침에 붙여 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갈퀴나물, 등골나물, 으아리, 참싸리, 칩, 짚신나물, 까치수염, 무릇 등을 보면서 신기한 표정으로 채반침에 있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목사님 설명에 귀를 종긋 세워가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식물의 이름과 특성을 듣기도 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식물 잎을 따서 맛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식물의 향기를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곡에 이르러서는 목사님이 잡아주시는 가제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저마다 가제를 잡느라 계곡의 돌들을 하나씩 들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제를 놓아주고 가자는 이야기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가제를 잡는 시간만큼은 모두들 신나 보였습니다. 성경공부교재가 아닌 자연이란 풍부한 교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접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만 접하던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많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물의
잎을 맛보고 계신 박훈
서 목사님

오전 식물나라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오후 프로그램인 물의 나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물놀이는 빠질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교회 마당에 모여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의 나라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인 족대와 어항, 떡밥, 낚싯대를 조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놀이 장소로 이동하는 아이들은 흥에 겨워서 목사님을 열심히 따라 나섰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에 따라,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하기도 하고, 어항 속에 떡밥을 넣어서 물 속에 담그기도 하고, 여러 명이 짝을 이루어 족대로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들은 자신이 가져온 튜브에 몸을 실어서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놀이 앞에는 어른과 아이에 상관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열심히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 사이에서 “물고기 잡았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이곳저곳



족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아이들

에서 물고기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아이들의 모습과 물고기를 잡았다가 미끄러워 놓쳐서 아쉬움을 삼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생각보다 안 잡힌다며, 낚시를 다른 친구들에게 넘기고 물놀이에만 몰두하는 아이

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도중에 폭우가 내린 관계로 물놀이를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관계로 목사님께서 주신 '수중생물 살피기'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물고기의 종류와 종에 따라 분류하고, 물고기를 통해 물의 급수를 판정할 수 있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날 오전 일정은 곤충나라였습니다. 식물나라를 진행하면서 잡아온 곤충들을 보면서 곤충의 분류와 관찰보고서를 써 보기도 하고, 각자의 기념이 될만한 박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채집통에 들어있는 곤충의 대부분이 잠자리였고, 개중에는 장수하늘노린재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곤충도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못 보던 곤충을 잡을 때마다 목사님께 물어 보는 아이도 있었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곤충을 잡아보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곤충나라를 마무리하면서 곤충을 통해 다양한 분류법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였고, 곤충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곤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곤충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도 하고, 곤충에 대해서 깊이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자연체험수련회를 마치며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도심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접해 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숨씨와 말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에만 살던 아이들에게 자연은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잠자리와 나비를 잡거나,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느라 쉬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필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글 없는 하나의 교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연이란 교재로 하늘샘 교회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던 박훈서 목사님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자연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식물나라, 물의 나라, 곤충나라를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몰랐던 식물들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셨고, 물 속에 살아 있는 물고기를 가까이서 만나게 해주셨고, 곤충 속에 담겨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숨씨를 유감 없이 뿜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께 교재에 얽매인 여름성경학교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란 교재로 진행되는 여름 자연체험수련회를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㉞



여름 자연체험수련회에 참가한 하늘샘 교회식구들